

## 農漁村開發方向과 UR對策

趙 秀 衡

(農林水産部 開發企劃官)



급속한 經濟發展과 産業化 過程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의 農業과 農漁村에 대한 問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10여년간을 끌어오던 UR협상이 작년말에 妥結되어 今年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個國 각료들이 모여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農業과 農漁村은 더욱더 큰 시련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國內外적인 與件下에서 단순히 “우리 農業을 지켜야 한다” “農村을 살려야 한다”는 식의 觀念的이고 감상적인 접근보다는 現實的이고 實質的인 問題點의 把握과 對應策의 강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42조원의 農漁村에 대한 投資計劃을 오는 98년까지 3년을 앞당기는 한편, “農漁村 特別稅”를 신설하여 今年 下半年부터 每年 1조 5천억원씩 앞으로 10년간 총 15조원을 農漁村과 農業競爭力 強化를 위해 投資키로 하는 등 2000년대를 대비한 활기찬 農漁村 建設에 總力을 기울인다는 것이 政府의 對應策이다.

農業과 農漁村을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는 農漁業의 競爭力의 強化와 農漁村 生活環境改善, 農漁村 文化福祉問題改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農漁村 發展課題 중에서 우리 農工人이 담당하고 있는 農漁村 開發 部門은 어느 分野이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農工人이 관여하고 다루어 나가야 할 農漁村 開發分野는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農業生産競爭力 強化를 위한 農漁村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農漁村開發은 農業生産基盤造成 위주의 農業用水開發, 耕地整理, 排水改善, 大單位開發事業이 이루어져 왔으나 事業의 主目的이 小農體制下의 食糧增産으로서 勞動生産性이나 生産費의 節減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取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競爭相對가 美國 등 광활한 農地面積을 가진 先進農業國이라는 점을 분명히 認識하여야 하며, 農漁村 構造改善事業의 일환으로 推進되고 있는 耕地規模化事業과 連繫하여 大形農機械 作業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의 筆地 大規模化를 積極的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래식 農業用水開發 方式의 탈피하여 現代의 水利施設을 갖추고, 또한 既存 水利施設을 自動化하고 維持管理에 편리한 施設로 代替하여 勞動生産性을 向上시켜 農漁業의 競爭力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農漁村 生活環境改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農漁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問題點은 많은 사람들이 農漁村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農漁村은 所得이 낮고 教育與件도 都市보다 나쁘며 文化生活을 누리고 싶어도 그럴만한 施設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총 180만호의 農漁村 住宅 중 19평이하의 재래식 가옥과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흙이나 흙벽돌, 시멘트블럭 등 전근대적 構造이고 이러한 재래식 주택들로 構成된 마을구조도 自然的으로 無秩序하게 形成되어 있어 젊은 세대가 農村生活을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農漁村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農漁村의 生活環境을 都市水準으로 現代化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農漁村을 集團化하고 現代式 住宅의 普及, 上下水道, 道路, 體育福祉施設, 流通施設, 電氣, 通信 등 모든 SOC분야가 農漁村에도 導入되어 農業生産基盤造成과 所得事業이 連繫推進되지 않으면 農漁村은 활기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날로 그 重要性이 高潮되고 있는 農漁村 環境保全 問題이다.

그동안 農漁村 開發分野에서는 農漁村 環境 問題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 農漁村의 오염도는 심각할 정도로 擴散되고 있어 이에 대한 保全策이 시급해지고 있다.

農漁村 環境保全의 主要 問題는 水質汚染 分野로서 소규모 하천, 수로, 저수지 등 곳곳에서 水質汚染 問題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푸르고 신선한 農漁村이 죽어가고 있다. 農家에서 배출되는 각종 生活下水와 糞尿, 畜産廢水 등이 아름다운 農村을 더럽혀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한 實情이다.

農漁村에도 地域特性에 맞는 汚廢水處理施設을 設置하고 各種 쓰레기를 處理할 수 있는 施設을 마련하여 맑고 푸른 休養空間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國土管理 側面이나 신선한 食品生産을 위한 農耕地 保護次元에서도 그 必要性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農漁村 開發이 單位事業別로 分離實施되지 않고 相互 連繫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민이 떠나간 곳에 耕地整理, 農業用水開發을 한다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며 農漁村 生活環境이 現代化된 곳에서는 당연히 生産基盤整備와 所得事業, 環境保全事業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農漁村 開發計劃이 地域別로 綜合的으로 수립되어 각종 農漁村 開發事業이 相互 連繫性을 가지고 추진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며,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農工人이 담당하고 있는 農漁村 開發을 시대적 與件에 맞는 方式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農漁村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사명감을 키워 나가는 동시에 기술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UR은 農業과 農漁村에만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農工人이 직접 연관된 建設, 技術用役 分野에도 96년부터 國際化와 開放化가 불가피하다. Software, Hardware적인 모든 分野에서 技術開發을 통한 競爭力強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農工人은 國家的인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게 된다는 데 認識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 農工人 모두의 획기적인 認識轉換과 技術競爭力 強化를 기대해 본다.